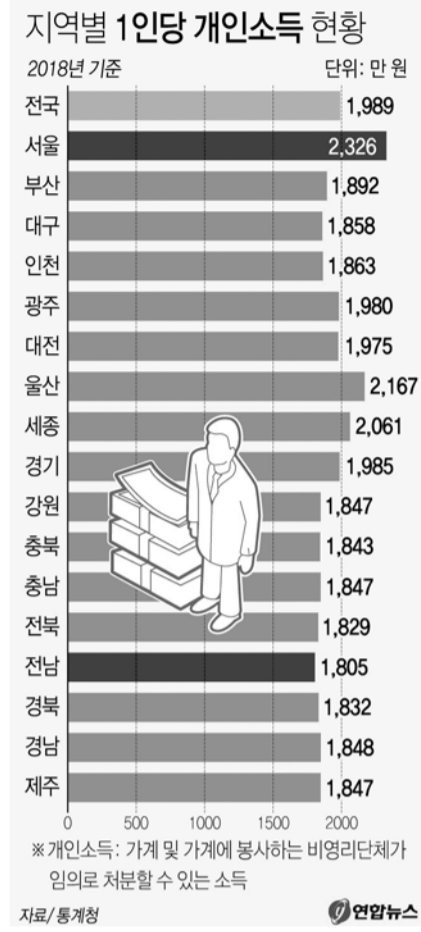


광주 지역내총생산 9년 연속 광역시 꼴찌



통계청 지역소득 조사... 1인당 개인소득 전년 2년 연속 꼴찌 광주 경제성장률 2위·건설투자 증가율 10.3% 상위권 들어

광주지역 지역내총생산(GDP)이 9년 연속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 1인당 개인소득은 2년 연속 최하위로, 1위 서울과 520만원 차이가 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역내총생산은 지난해 광주 39조8145억원·전남 76조4655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내총생산은 통계청의 2015년 기준년이 개편된 2010년 이후 9년 동안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이어오고 있다. 17개 광역시·도를 놓고 비교하면 세종(11조1087억)과 제주(19조9109억)를 아래에 두고 15위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 내총생산은 76조4655억원으로 8위였고, 경기(473조)→서울(422조)→충남(117조)→경남(110조)→경북(109조)→부산(89.7조)→인천(88.3조) 순으로 높았다.

전남지역은 1인당 개인소득이 2년 연속 꼴찌로 나타났다. 지역 1인당 개인소득은 광주 1980만원·전남 1805만원으로 각각 5위와 17위를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1989만원) 보다 낮고, 1위 서울과는 345만(광주)-520만원(전남) 차이가 났다.

전남지역은 지역총소득(명목) 증가율도 부진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지역총소득 증가율은 1.1%로 울산과 함께 공동 15위를 기록했다. 광주 증가율은 3.3%로 전국 평균(3.1%) 보다 높았다.

한편 지역의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공장을 짓는 총고정자본형성에서 광주지역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도별 총고정자본형성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투자액은 5조2316억원, 설비투자는 2조3314억원으로 모두 1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 88조·설비 46조원을 투자한 경기도의 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인 2017년과 비교한 광주지역 건설투자(실질) 증가율은 10.3%로 상위권에 들었다.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광주·전남 모두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광주 경제성장률은 5.2%로 충북(6.3%)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성장률(3.1%-5위)도 전국 평균(2.8%)를 넘겼다.

광주지역 업종별 지역내총생산은 보면 농림어업(-2.9%)과 운수업(-0.3%)은 감소했으나 제조업(3.6%), 보건·사회복지업(10.1%), 건설업(9.1%) 등은 증가했다. 민간소비(3.2%) 및 정부소비(5.5%)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전남지역은 광업(-15.1%), 도소매업(-0.7%) 생산은 감소, 제조업(3.0%), 공공행정(4.9%) 등은 증가했다. 민간소비(3.0%)와 정부소비(5.7%)는 오름세를 보였다.

1인당 민간소비는 광주지역이 1775만원으로 서울(2121만), 울산(18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남(1553만원)은 16위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03.71 (-0.47)
- ↓ 금리(국고채 3년) 1.38 (-0.01)
- ↓ 코스닥 647.62 (-2.11)
- ↑ 환율(USD) 1164.30 (+3.70)



'화정 한양립스' 내달 3일 그랜드 오픈

240세대 조합원 모집

광주 화정동지역주택조합이 '화정 한양립스(투시도)' 조합원을 모집한다. 화정 한양립스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178-74번지 삼익맨션 인근에 전용면적 65㎡, 76㎡, 78㎡ 총 240세대로 구성되며, 시공은 한양건설이 맡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도보로 5분 거리 내 초·중·고, 초·중·고학세권의 프리미엄 입지를 다 누릴 수 있다. 광주신세계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과 가이자동차 1·2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 서구청 등 관공사가 밀집해 있다. 또 인근에 농성역이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 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서평중IC, 무진대로, 죽봉대로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으며, 교육환경으로 서초교·

서석중·서석고 등이 5분 거리에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무비율이 없고 절차가 간소해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분양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12일 광주 광산구 남구·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운데 '화정 한양립스'는 현재 치솟고 있는 일반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과 입지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자세한 정보는 내달 1월 3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536-24번지에 문을 여는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상악화 영향' 광주·전남 가을배추 생산량 11년만 최저

통계청 조사... 전년비 29.1%·11만t 급감

세 차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올해 광주·전남지역 가을배추 생산량이 9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 생산량은 광주·전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가을배추·가을무 생산량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지역 가을배추 생산량은 광주 4190t·전남 27만34t 등 27만4224t으로 집계됐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 2008년(25만8836t) 이후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역 가을배추는 2010년 이후 30만~40만 t대를 오르락내리락하다 지난 2014년 50만t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생산량은 38만7088t으로 올해 생산량은 이보다 29.1%(11만2844t) 급감했다. 전국 생산량 감소율은 -24.5%(140만4150t→105만9925t)이었다.

가을무 생산량은 광주지역 생산량 통계를 작성한 1987년 이래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지역 가을무 생산량은 광주 6415t·전남 6만3053t 등 6만9468t으로 지난 2010년(7만7163t) 이후 처음으로 10만t을 밑돌았다.

지난해 생산량(8만5939t) 보다는 19.1%(1만6471t)이나 줄었다. 전남 생산량 감소율은 -22.3%이었고, 전국 평균은 -13.3%를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를 심는 시점인 9월 초순부터 세 차례의 태풍과 강우, 배추 가격 약세로 재배면적이 줄었으며, 생육기에 일조량도 부족해 생산량까지 줄었다"며 "생산량이 줄면서 가을배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7.8%(587ha) 작아진 2707ha이었고, 가을무 재배면적은 19.4%(212ha) 감소한 876ha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무 1개는 2880원에 팔렸고, 손질된 배추는 한 포기 3280원에 판매됐다. 한 달 전 무 1개 가격은 2380원이었고, 손질되지 않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2000원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학생 홍보대사 기부금의 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지난 21일 은행 본점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기부금의 밤'을 열고 홍보대사 150명이 모은 성금 200만원을 지역 청소년 대학 등록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291명의 지역 홍보대사를 배출했으며 내년 3월 '10기 홍보대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뽕-하신년!' 뽕수 달력, 예약판매 첫날 인기 폭발

접속 폭주·실검 1위 장악

EBS 뽕캐릭터 '뽕수'를 내세운 '뽕수 달력'이 예약판매 첫날부터 인기가 뜨겁다. 23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 판매 사이트인 G마켓은 이용자가 몰려들어 접속 대기 인원만 3만~4만여명에 달하는 등 일시적인 '폭주 상태'를 겪었다. 이날 오전부터 '뽕수 달력'은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유지했다.

뽕수 달력은 뽕수 일러스트가 담긴 '타입 A 뽕수 일러스트 캘린더'와 사진으로 구성된 '타입 B 뽕수 포스터 캘린더'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매달 뒷면에는 월별 정리 페이지가 실

리고 인텍스터리커가 담겼으며, '남극사건관'에서 찍은 뽕수 증명사진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뽕수 달력은 오는 27일 일괄 배송될 예정이며, 추후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뽕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구독자는 147만명을 넘겼다. 뽕수가 등장하는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뽕수, 내일도 뽕수' (일명 '뽕수 다이어리')는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뛰어넘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